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구세주를 아는 이들(찬14/새26장)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주홍 집사 2부/김백열 장로 3부/김종현 집사 4부/박제인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불 같은 성령 (작곡 John W. Peterson)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로마서 8:1-2, 31-32 .....All together 다같이

4부/누가복음 10:25-37

말씀 Message .....1, 2, 3부.....Rev. Jae Sik Kang 강재식 목사

## 예수 잘 믿읍시다

4부 .....Rev. Taehoo Lee 이태후 목사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죄 사함 받고서(찬210/새421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 .....Rev. Jae Sik Kang 강재식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부모님의 고르반(Κορβᾶν)

## Parent's Corban(Κορβᾶν)

**이충경 목사** / Rev. Choong Kyung Lee

성경에 고르반(Κορβᾶν)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7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시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인 너희가 위선자라 질책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의 문제에 가장 많이 저촉되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목사인 저는 늘 목회가 우선되어야 함을 당연시하며 고르반의 당위성을 가지고 부모와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주변에 제가 이미 드린 바 되었다며 고르반이 되었음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 장인께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여쭤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시차로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행정목사로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의 사역과 일들로 인하여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요예배 시리즈와 베델교회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 베델기도학교 수료 및 종강식을 섬기는 일 등 한주의 시간이 금방 가 버리는 가운데, 오늘은 진짜 전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날, 헵시바 기도회를 앞두고 교회 앞 큰 교통사고로 인해 이런저런 신경을 쓰다가 또다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만하면 벌써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상황 종료가 된 후에 너무도 늦게 장인 어른께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장인어른의 이 한마디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걱정 말게나, 자네는 목회나 열심히 하면 돼" 순간 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가 아닌 장인어른이 나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장인어른께만 있었겠습니까? 목사의 생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저희 부모님도 똑같으셨을 거 같습니다.

늘 부모 공경을 위한 설교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께 효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가 설교했던 내 자신의 위선이 발견되면서 바빴다는 핑계, 피곤했다는 핑계, 늘 기도는 하고 있다는 핑계 등으로 고르반을 외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작은 헤아림조차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핑계 대지 못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죄송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며 밖을 서성이다 깨닫게 되는 것은 고르반(Κορβᾶν)으로 드린 자는 내가 아니라, 부모님과 가족들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더욱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There is a story in the Bible about Corban(Κορβᾶν). In Mark chapter 7, Jesus speaks of honoring father and mother as Corban(Κορβᾶν), a gift devoted to God. But, He rebukes those that says the gift devoted to God has already been completed as being hypocrites. When I think about this story, I feel like I am the most conflicted with the Corban. As a pastor, I obviously think that ministry should always be my top priority. I wonder if I have used the Corban as an excuse to put less of an effort to serve my parents and family. And, I wonder if I have even stressed the fact that I am a Corban, and that I have already done my deed to those around me.

My father-in-law was hospitalized recently. I know I should have called him to check on his wellbeing. With my busy schedule as an administrative pastor, I kept missing the time to call him due to difference of time between Korea and U.S. One week passed by very quickly, I was busy taking care of visitors who want to learn about Wednesday Worship series and about Bethel Church, serving in Bethel Prayer School commencement and closing ceremony. And, on the day I was prepared to call, there was a huge accident in front of our church just before Hephzibah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Once again, I missed the timing. Aren't there enough excuses?

I did call my father-in-law eventually, after situations were handled. What he said made my heart ache. I felt ashamed to hear him say, "Don't worry about me. You just concentrate on your ministry." I lived my life as a Corban. I thought I gave myself as a gift devoted to God. But the truth is that my father-in-law gave me to God as a Corban. I felt ashamed. Do I think this is only with my father-in-law? It is the same with my parents who gave their lives for pastoral ministry and understand life of a pastor better than anyone else.

I discovered my hypocrisy as someone who preaches about honoring parents. If I could not honor parents who are visible to my eyes, how can I possibly honor and respect God who is invisible. With excuses of being busy, tired, and praying, I felt ashamed of myself for shouting Corban. Not being able to cherish parents who are visible to your eyes, and not being able to show the smallest of care for them, I feel, are inexcusable. Acknowledging my sin and regrettable heart, I realize that the one offering up Corban(Κορβᾶν) is not me, but are my parents and family. Therefore, we need to love and honor our parents and family even mor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강재식 목사

# 예수 잘 믿읍시다 로마서 8:1-2, 31-32

■ **적용찬양:** 내 죄 사함 받고서(찬210/새421장)

예배 - 초등부

#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

매주 주일 1부(9시), 2부(11시)에 체육관에서 드려지는 초등부 예배를 소개합니다. 찬양팀 친구들은 20분 전에 도착해 출석, 성경 암송 및 큐티를 체크하며 찬양을 준비하고, 선생님들 역시 같은 시각에 모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는 아이 중 한 명의 대표기도로 시작되고, 설교 말씀 본문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각 반으로 흩어집니다.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시작하며 복음서를 통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부를 졸업할 때쯤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한 후 BYM에 올라가게 됩니다. 각 성경공부반은 8~10명이 모이게 됩니다. 함께 어울리며 선생님의 가이드에 따라 말씀에 마음을 열어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진지하게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30분 후, 다시 예배당으로 모이면 아이들 연합으로 꾸려진 찬양팀의 인도로 손뼉을 치고 폴짝폴짝 뛰고 빙글빙글 돌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낯선 공간에 찾아와 처음에는 귀를 막던 새로 온 아이들도 몇분이 지나면 신나게 손을 번쩍 들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이 끝날 때쯤 따뜻한 카리스마의 지혜로운 이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해맑기만 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나이 또래의 걱정과 고민도 보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 선생님들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며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그 사랑으로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박찬미 집사(초등부 교사)

사역탐방

# 기도 사역팀

**1. 사역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성도 자신과 교회가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2.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는지요?**

레위기도 (예배를 위해 매주 1, 2, 3부 예배 시간에 컨퍼런스 룸에 모여서 하는 기도), 골방기도 (골방 혹은 원하는 곳에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두 시간 동안 개인과 가정,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 온라인 두드림 (매일 카톡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공동 기도 제목을 보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 기도학교 (1년에 두 번, 학기별로 세미나와 체계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그룹 기도를 통해 기도 모임 리더를 양육하는 프로그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기도학교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존 목회자 중심의 기도학교와 달리, 성도 중심의 기도그룹으로, 매주 한 번, 15주 동안 세미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하여 기도 모임 리더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참 의미를 찾기 원하시는 분, 기도에 자신이 없는 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는 8월 27일에 시작합니다.

**4. 감사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기도의 부흥과 동역자를 꿈꾸며 기도하는 중에 지금의 기도 사역 팀원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과 팀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무너졌던 기도의 모임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기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5. 사역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더욱 탄탄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prayer@bkc.org

선교-K국

# 사랑의 마술을 행하신 선교

K국 선교란 말을 들었을 때 알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였지만, 선교란 단어는 아주 그리웠고 흥분되는 단어였습니다. 청년 때 처음 간 선교에서 더 깊게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성장하게 된 믿음 생활 가운데 선교는 제 삶의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직을 위해 준비하는 중 5월에 가는 선교는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며 3월부터 K국 단기 선교 미팅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직장 인터뷰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4월에 K국 행 비행기 티켓을 사고 선교 출발 1주 전에는 새 직장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어머니가 폐렴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시며 선교 출발 전까지도 걱정이 많았는데, 조금씩 나아지셨고 선교 여행 중 들은 어머니의 퇴원 소식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섬기는 가운데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팀원들과 함께 많이 배웠고, K국에서 만나고 섬겼던 아이들과도 너무 아쉬웠지만, 이번 선교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배운 집사**

직장에서의 일이 감당하기 힘들 즈음에,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떠나는 선교팀 K국에 지원하였습니다. 7주에 걸친 준비모임에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준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선교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저와 팀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영어반 아이들과의 수업을 준비했는데, 아이들 간의 격차가 심해서 우리가 준비한 교재로는 수업하기가 어려웠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신 다른 방법으로 이 집사님을 통해 수업을 재미있게 하게 하시고 저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선교를 할 수 없는 곳이라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 아이들의 눈 속에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려놓으셨고,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라고 선교사님 부부와 저희 선교팀을 보내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고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니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팀원들을 통해 많이 웃게 하시어 강퍅했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기도의 방법과 응답을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 소망 센터 공터에 남아있는 공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도 가져봅니다.

**박규희 권사**

올해는 단기선교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심 선교 준비모임에 한번 가 보고 결정해야겠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모이는 당일 아침 묵상에서 꼭 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 저에겐 가는데 20시간, 오는데 22시간의 비행시간이 부담되었지만 일단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주변에 기도 부탁도 부지런히 하다 보니 두 달여가 금세 지나고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이 크신 두 팔과 손으로 한 번에 얼바인에서 K국으로 옮겨 주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편안한 여정이었습니다. 단기선교 10일 동안 주님이 묶어주신 팀원들로 인해 몇 년 전에 등록 교인이 되었는데도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던 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다가서는 사랑의 마술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팀원이 K국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은 진정이고, 진심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상의 설경과 푸른 능선에서 거니는 말들의 여유로움은 천국 동산 같은데 이 땅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산 위에 올라 선포하고 왔습니다. 'K국이 하나님의 땅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함께 그곳에 서 있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번 K국 단기선교는 내 인생 후반전의 비전을 찾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정숙 권사**

교육부

# 다음 세대, 제자를 키우는 귀한 섬김

저는 1년 전 교사 모집 광고를 보고 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어릴 때 유럽에서 작은 한인 교회를 다녔는데 저의 막내를 포함한 3-5세 아이들의 교회학교 교사로 3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때는 제 아이 셋을 양육하기도 힘들어서 교사로 섬기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오랜만에 본 K-1 아이들은 너무도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아이들은 매주 저를 보면 반갑게 눈인사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웃으며 다가와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도 잘 알기에 K-1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의 시간과 공과 공부 시간은 늘 소중하고 귀합니다. 매주 말씀 암송과 매달 큐티를 아이들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부모님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저에게 웃음과 기도로 감동시켰고 아이들에게 받는 사랑이 오히려 더 많음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하 집사(K-1 교사)**

베델교회에 정착하고 나서 섬길 사역을 찾을 때, 영어 중고등부 교사로 권면 받았습니다. 저는 자녀도 없고 청소년 아이들과 거의 교류한 적이 없었기에 많이 망설였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틴에이저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른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습니다. 어쩌면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과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 중 강단 초청 기도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예배당 앞으로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삼삼오오 둘러앉아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다음 세대와 제자를 키워내는 귀한 교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지애 집사(영어 중등부 교사)**

간증 - 기도학교

#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기도학교에 떠밀리듯 등록하게 하신 주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소원들을 자세히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널을 맞추기 위해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팀장님께서 올려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조 단위로 기도하며, '나' 중심의 기도에서 '내가 아닌 남, 교회, 선교지' 등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갔습니다. 그룹 리더로 섬기면서 조원들 한분 한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함께 했기에 15주를 완주할 수 있었음을 저희 모두 고백했습니다. 20마일을 운전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향해 오시는 자매님을 보며, 가까이 살면서도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님의 병간호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신 자매님은 우리 그룹의 기도로 주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바로 응답해 주셨음을 기쁨과 감격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계속되는 기도학교를 통해 베델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김은혜 집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엡7:18) 기도학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 나와 가족이 아닌 이웃과 교회와 나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마음을 다해 세심하게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 기도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기도의 자리에 옮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경숙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유년부 성경 암송 대회

유년부 사역 가운데 BMC(Bible Memory Contest)를 소개합니다. 유년부 학생들은 매 주일 배우는 성경 말씀과 관련된 주제 성구를 하나씩 외웁니다. 유아부 때부터 교회 학교에 다닌 친구들은 이미 짧은 암송 구절을 외우던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 2-3학년이 되어 유년부에 올라오면 그 외우는 속도가 빠르고 구절 길이가 깁니다. 매달 첫째 주일이 되면 한 달 동안 외운 3-5개 암송 구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암송합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BMC(Bible Memory Contest)가 열리면 두 달 분량의 6-9개 암송 구절을 다 외운 친구들이 예배 시간 앞에 나와 암송하고 상품을 받습니다. BMC는 일 년 내내 진행되는 유년부의 중요한 사역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암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한주에 한 구절씩 일 년이면 어느덧 50구절에 가까운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힘줄이 보이도록 목청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창고에 저축된 암송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꺼내져 펼쳐질 자녀들의 미래도 정말 기대됩니다.

말씀 암송은 어린이들의 가슴에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 외운 것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암송은 자녀들을 지키는 영적 자산이자 영적 무기입니다.

▶ **일시: 7월 2일(주일)**
▶ **장소: 유년부 예배실(2부 예배 중 오전 9시 40분, 3부 예배 중 오전 11시 40분)**
▶ **문의처: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Joyland@bkc.org**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월) |**

| | | | | |
|---|---|---|---|---|
| 6/4: | ①부-김성균 | ②부-김정윤 | ③부-김인권 | ④부-박찬미 |
| 6/11: | ①부-여홍평 | ②부-김정태 | ③부-김진성 | ④부-이서원 |
| 6/18: | ①부-김태원 | ②부-다무라고조 | ③부-박상곤 | ④부-이효민 |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6월) |** 6/3: 김동균 6/10: 김양래 6/17: 김유호 6/24: 김석열

**강단꽃(5,6월) |** 5/28: 송미선, 양석주,왕동원 6/4: 이상희, 지효정, 황은아 6/11: 강재형, 김진희, 송상희, 이희정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진(한의과),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장진석(가정의학과), 간호사-신정연

##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베얀),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3부 예배에는 서울 목동, 광현교회 담임이신 강재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더불어 4부 예배(예삶)에는 필라델피아 North Central에서 사역하시는 이태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든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 **3차 VIP 작정의 날** 오늘(28일)은 9월에 있을 새생명축제를 위한 '3차 VIP 작정의 날'입니다. 나누어 드린 VIP 작정카드를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예배당 양쪽 출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VIP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임동억 장로 (323)356-0521

◆ **베델 수요예배**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박성권 목사의 'Warrior or Worrier(용사인가? 겁쟁이인가?)'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드려집니다. 모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셀모임 방학** 6월 첫째 주부터 상반기 셀모임 방학을 시작합니다. 셀모임은 방학에 들어가지만, 예배는 계속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도 계속됩니다. 온세대 큐티로 가정 안에서의 셀모임이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환영회가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6월 10일(토) 저녁 5시
(오후 4시 20분에 담임 목사님과 미니 데이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장소: 체육관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 **베델 BAM 선한 청지기 프로젝트 Fundraising** 베델 BAM 수업 실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금은 시원한 밀크티 보바와 매실 콤부차, 깔라만시 에이드가 코트야드에서 10시부터 판매됩니다. 수익금은 비영리기관인 Kiva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을 원하는 분들에게 씨드 머니로 소액 투자됩니다.

◆ **제10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3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아래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목)-6월 30일(금)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scholarship@bkc.org

◆ **장학 특별 헌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장학 특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 세대도 겪지 못했던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시 '장학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이양수 집사 (323) 793-1479

◆ **교회학교 VBS 일정**
영유아부: 6월 14일(수)-15일(목)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VBS Festival 6월 16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K-5학년: 6월 21일(수)-23일(금) 오후 1시-오후 5시 30분
VBS Festival 6월 24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30분

◆ **교회학교 VBS 교사 모집** 원활한 VBS 진행을 위하여 중고등부 TA를 포함하여 어른 교사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사 지원 링크는 각부서 전도사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금), [K-5] 6월 21일(수)-24일(토)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교육부 교사 기도회** 'Always Be There: Always Keep on Praying' 아멘져스(AMENgers)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모든 교육부 교사와 TA는 참석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다가 오는 'VBS: Keepers of the Kingdom'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일시: 5월 28일(주일) 오후 12시 45분
장소: 체육관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베델한국학교 가을 학기 등록 중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등록해 주세요.
등록 기간/등록처: 5월 6일(토)-6월 4일(주일), school.bkc.org
학기 일정: 8월 26일-12월 16일(16주 과정, 11월 25일 휴강) 오전 9시-오후 12시 30분
학비: $320(교재 및 간식 제공)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koreanschool@bkc.org

◆ **교역자 동정** BYM(영어 고등부)을 섬기시던 John Yeo 목사가 이번 주로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부르심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장마이클 성도님(장은희 권사의 남편)께서 5월 20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 캠페인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 박은혜 권사 ■ 사 진 :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Jae Sik Kang

# Let's be Faithful Believers of Jesus

Romans 8:1–2, 31–32

■ **Song in Response:** Everything is Changed(Hymn 210)